

역량 확인하는 '현장평가' 최초 도입

도교육청, 5급 승진 명부 20%·역량평가 80%로 순위 결정

전북도교육청은 2일 오전 전주교육지원청 시청각실에서 2019년 5급 승진 심사제 운영 기본계획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승진심사제도에 관심이 있는 직원들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역량 평가를 10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평가결과 승진예정자는 내년 1월 이후 승진임용할 예정이다.

5급 승진심사 운영 기본계획에 따르면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20%와 역량 평가 80%를 반영해 승진대상자(순

위)를 결정한다.

역량평가는 관리자로서 역량을 갖춘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보고서 작성(40%)을 통해 업무 기획과 문제인식·해결 능력을 살피고, 심층면접(집단토론·개별면접 30%)을 통해 국민중심적 사고와 의사소통, 조정통합 능력을 평가하게 되며, 올해 최초로 도입되는 현장평가(10%)는 평가대상자의 직무수행 능력 및 직무수행 태도, 리더십을 검증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고서 작성은 직무·사

회활동 과정에서 습득 가능한 일반적인 주제 또는 사회 일반 분야에서 제시된 기본 자료를 보고 문제의 핵심을 파악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나아가 조직 상황을 고려해 실현 가능한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심층면접은 집단토론면접(60분)과 개별면접(20분 내외) 등 2단계로 진행되는데, 집단토론면접은 3~4명이 무작위로 조를 이뤄 공통의 해결과제에 대한 토론을 거친 뒤 공동의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며, 개별면접은 인성, 역량뿐만 아니라 6급 재직 기간 중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다.

또한 근무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도입되는 현장평가는 6급 근무기간 중 6개월 이상 함께 근무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되며, 조직 구성원과의 소통 및 협력정도, 청렴성 등을 검증하게 된다.

역량평가까지 모두 마치면 역량평가 단장인 부교육감이 승진심사를 위한 최종 평가 결과를 작성하게 되는데,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점수와 역량평가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결정한다.

이 결과는 인사위원회에 승진심사 자료로 제공돼 승진의결 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정은성기자

전북교육청, 교육공무직 학습동아리 지원 나서

전북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의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에 나섰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공무직원 학습동아리' 운영 계획을 안내하고, 오는 12일까지 학습동아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직원 학습동아리 운영은 올해 처음 선보이는 것으로 교육공무직원의 자율적인 연구·학습을 통해 자기계발과 업무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또 창의적인 학습과 연구를 통해 업무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 중심의 개인별 지식 및 노하우를 공유해 조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학습동아리를 희망하는 교육공무직원은 10~15명 이내로 팀을 구성하고, 공모신청서·활동계획서·회원명단 등의 서류를 갖춰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공모분야는 지정주제로 △초중등분

교실 만족도 향상 방안 △교무행정업무 지원 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계발 방안 △교육현장 지원을 위한 학교구성원(교육공무직원)의 역할 방안 연구 △학교 식생활관의 효율적인 위생관리 방안 연구 △노동시간 주2시간 시행에 따른 근무방안에 대한 연구 등 5가지다.

자율주제는 교육공무직의 업무역량 강화 방안, 교육현장 개선을 위한 방안, 민원인 만족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과 같이 현안업무 중심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업무 이외의 단순 친목 위주 소모임 및 영리추구 목적, 봉사활동 등은 공모 주제에서 제한된다.

도교육청은 심사를 거쳐 지정주제 5팀, 자율주제 10개팀 총 15개팀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동아리에는 150만원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최종 결과발표는 오는 19일이다.

/정은성기자

고풍스러운 미에 현대의 미 조화시키는 '온고지신'의 힘

전북대 최남규 교수, '삶·사람·논어' 출간 논어에 나오는 성어 120개 주제로 현대 사회 빛대

전북대학교 최남규 교수(인문대 중어중문학과)가 논어를 통해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와 사람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삶·사람·논어' (전북대학교 출판문화원)를 출간했다.

이 책은 '성어로 읽는 논어-물시어인'을 시작으로 '서예로 읽는 논어'를 펴낸 바 있는 최 교수의 세 번째 '성어로 읽는 논어' 시리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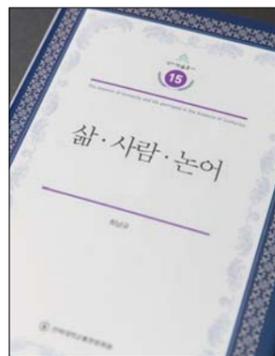
책을 통해 최 교수는 논어에 나오는 성어 120개를 주제로 성어의 한자 근원을 설명하고, 출현 원문을 살펴보는 한편, 이와 관련이 있는 내용을 논어와 혹은 이외의 다른 경전을 참고해 자신의 생각을 현재를 살아가는 사회에 빚어 이야기한다.

또한 책 뒤 쪽에는 '후비(後備)'라는 항목을 별도로 마련해 논어에 출현하는 200개 성어의 음과 뜻을 비교적 간략하게 밝히고 그에 해당하는 논어의 글귀를 인용했다.

이 책은 모두 논어의 310개의 성어를 소개하고 있다. 논어는 공자가 제자들과 혹은 공자의 제자들이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나눈 삶의 도리와 지혜의 이야기다.

살아가면서 필요한 삶의 지침서인 논어를 읽고 서로 부담 없이 생각하고 이야기해 보면서 그곳에 담겨 있는 삶의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목적에서 쓴 것이다.

또한 논어는 지나치게 의리적이고 철학적으로 생각하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고원한 고전이 되고 만다. 논어는 성인의 고리타분하고 진부한 잔소리가 아니며, 때때로 난해한 한문책도 아니다. 우리 이웃이나 가족과 함께 살아가면서, 부대끼고 임찌름하면서 서로 힐끔고 상대방을 닮고 아귀다툼 할 때, 이에 대해 고민하고, 카운셀링하고, 격려해 주는 가장 일상적인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씀과 같은 책이다.

본 책은 사자성어로 읽는 논어다. 성어의 한자는 고문자의 유래도 함께 설명했다. 한자는 표음문자와는 달리 일종의 표의문자이다. 한자의 근원을 알면 문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문자를 기억하거나 학습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논어의 사자성어 중 일부는 이미

현대 사회에서 '성어'로 사용되고 있다. 사자성어를 주제로 택하여 이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 자신과 빚어 이야기 해 본다면, 논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지 않더라도 논어를 읽고 싶어 하는 독자에게 상당한 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논어를 가까이 할 수 있는 다리가 되어 줄 것이다.

한편 구술을 타파하는 것도 좋으나 무조건 옛 것을 뜯어 고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옛 것을 고치지 않고 적절히 발전시켜 계승하는 것이 고풍스러운 미에 현대의 미를 조화시키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힘이다.

'온고지신'은 종래의 규칙과 관례에 무조건 매달리는 '복수성규墨守成規'와는 다르다. 공자는 전통의 힘에 기대어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한 단계 발전시켜 추진력을 보태어 '온고지신'하면 스승이 될 수 있다. 고전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보고 젊은이에게 꿈을 갖게 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기도 하다.

/정은성기자

도교육청, 대입진학지도 역량강화 연수 실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변화하는 대입제도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내 고·2 담임교사의 대입진학지도 역량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4~5일 이틀 간 전주대학교 슈퍼스타홀(학생회관 3층)에서 도내 고·2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과 운영 방안, 진로진학지도 대비전략, 지도방안 등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2021/2022 대입 대비전략 △고·2학년 담임교사의 역할 △담임교사의 진로진학안

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과 운영 방안 등을 통해 현장 교사들이 변화하는 대입제도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대입제도의 개편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고·2 담임교사의 역량을 강화하여 학생 개인의 꿈과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학지도를 돕고, 담임교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성을 키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군산대 박병선 총장, 미국 자매대학 총장 접견

군산대학교 박병선 총장은 최근 대학 본부에서 군산대학교의 자매대학인 미국 타코마커뮤니티칼리지(Tacoma Community College) 총장 이반 해럴(Ivan Harrell) 및 빅토리아 우다스(Victoria Woodards) 타코마 시장 일행을 접견하였다. 이번 방문은 양 대학의 학생 및 연구 협력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접견장에는 군산대학교 박병선 총장을 비롯해 이성수 교무처장, 이성미 학생처장, 양현호 기획처장, 박시균 국제교류교육원장 등과 타코마시 방문단 일행이 참석했다. 방문단은 환담과 오찬을 가지며 양 대학 사이의 다각적인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시에 소재한

타코마커뮤니티칼리지는 1965년에 설립된 후, 2009년 6월 군산대학교와 국제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교류협정 체결 이후 양교는 활발한 유대 관계를 맺으며 학생 교류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여 왔다.

타코마시는 군산시의 자매도시로 미국 워싱턴주에 속해 있다. 철도, 항공 등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 교통의 요지로, 주변에 관광지가 많아 관광기지로도 유명하다.

이번 방문은 군산시와 미국 타코마시의 자매결연 4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고, 타코마 대학과 타코마시, 군산시와 군산대학교는 상호 유익적인 협력을 통해 다각적인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군산=김정훈기자

원광대, 경쟁력 강화로 위기 극복 시동... 사이버캠퍼스 활성화로 상생발전 모색

원광대학교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위기 극복에 시동을 건다.

3일 박맹수 원광대 총장은 취임 100일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돌파하기 위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원광대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리적 캠퍼스 조성 개념을 넘어서 사이버공간으로의 대학 확장 전략을 마련·추진한다. 특히 사이버캠퍼스의 활성화를 통해 대학의 수도권 이전 논란 등을 불식시키고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모색한다.

원광대는 또 15만 졸업 동문을 활용한 학교 발전도 추진한다.

각 지역별, 직업별 동문회를 활성화해 위기 극복의 돌파구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학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위기극복 캠페인을 전개하고 6개 학과별 교수 간담회를 개최해 문제점 도출과 해결 방안 등을 구상한다.

여기에 익산시 등과의 상생발전협의체를 활성화 해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우수한 연구자가 지역에서 연구활동을 펼칠 수

있는 토대 조성에 나선다.

또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상에 도덕교육을 접목해 지적경수와 도의실현의 교학이 실현될 수 있는 공간 마련에 도전한다.

박맹수 총장은 "지방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는 물론 졸업생, 학내 구성원들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인성을 겸비한 마음 따뜻한 첨단과학기술자를 배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